

都市工(計劃)學科의 배경과 전망

尹 喆 鉉

(東亞大 都市工學科)

1. 머리말

오늘날 도시 문제는 18세기 산업 혁명 후 산업 도시의 출현에서 그 뿌리를 찾아 볼 수 있다. 산업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의 도시화는 도시 시설의 양·질적 부족 및 노후화에 의한 물리적 문제, 도시 생활에 미처 적응치 못한 진입 인구의 무위도식, 절도, 알콜 중독 등 사회 문제 그리고 이들을 부양해야 할 경제적 문제 등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도시 계획은 경제, 사회 및 물적 계획까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특수성을 안고 있어서인지 금세기 가 되어서야 비로소 학문적 정착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2차 대전 후 전 세계가 국가 도약의 새로운 준비를 갖추고 현대화의 물결을 거세게 탈 동안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외세의 침략에 지쳐 약 20년 동안의 휴면 상태를 허용하게 되었다. 근대사에 있어서 귀중한 시간을 그냥 보내고 196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기지개를 켜게 되었으니 경제 개발 계획의 착수가 그것이다. 이때부터 시작된 새로운 사회 변동은 선진 서구 사회의 과거 패턴을 거의 좇았으며 도시에 대한 정부의 기대가 컸던 만큼 각종 도시 문제의 출현 가능성도 현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때 당연히 수반되는 사항인 도시계획학의 중요성이 소

수 선각자에 의해서 강조됨과 함께 국내에서는 최초로 1964년 동아대 공과대학에 도시계획학과가 신설되어 그 이듬해부터 신입생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시간의 경과와 함께 사회가 동적으로 될수록 도시계획학의 중요성이 더욱 깊이 인식되어 현재에는 16개 대학에 동 학과가 신설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 같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본고는 도시공(계획)학과 및 교육 내용을 소개하면서 도시계획학의 학문적 성격과 장래 발전 방향을 개관함으로써 도시계획 학문 및 학과에 대한 이해의 편리를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都市計劃의 學問的 性格

도시의 역사는 인류의 정착 생활과 함께 시작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산업 혁명과 깊은 연관 속에서 파악되지 않으면 안된다. 산업 혁명으로 인한 산업 사회의 출현은 처음부터 능률성을 표방하게 되었고 능률성은 개별적인 단위 사회 혹은 지역간 경쟁을 불가피하게 한다. 능률성의 제고와 함께 경쟁 우위의 확보를 위한 장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인 것이다.

도시는 여러 활동들이 집적될 뿐만 아니라 새

로운 기능을 창출하는 중심적 역할도 한다. 이 때문에 도시는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면서 끊임 없는 성장과 변화를 통하여 창조와 혁신을 거듭하기도 한다. 도시간 경쟁 우위의 확보를 위한 새로운 창조 과정에는 필히 다양한 사회문제 및 현상들이 파생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파악해서 분류 혹은 연관지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더불어 도시에 대한 많은 연구와 생각들이 축적되어 왔다. 도시의 문제와 현상들은 독립적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이면서도 다중적 관계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이들에 대한 접근도 소극적·간접적인 것보다 적극적·직접적인 자세와 태도를 요구하게 되었다. 게다가 산업 도시의 동태적 변동은 발생하는 현상보다 발생될 현상에 더 큰 관심을 요청하게 되었으니 이때부터 도시 계획이 학문으로서 발을 붙이게 되었다.

도시 계획은 그것이 소수 지배 엘리트층을 위한 것이든 도시 자체를 위한 것이든 간에 고대 사회에도 존재하였다. 인류가 오랜 유목 방랑 생활을 마감하고 맞이한 농경 생활은 잉여를 가능케 했다. 외적으로부터 잉여 농산물의 보호와 농민 개개인 死後의 보장을 위하여 농민에 의해서 생산된 잉여 농산물은 사원의 건립과 성곽의 축조로 환원되었다. 성곽 내부는 주민들의 최소편익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주되 이들을 통치하기 용이한 형태로 계획하여 도시 국가를 이룩해 나갔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금세기초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윤리적 역사주의자와 가치 판단 부정론자들 사이에 있었던 계획에서의 목표의 객관성에 관한 논쟁(가치 판단 논쟁)이 M. Weber 에 의해서 평정되면서 계획이 학문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즉, 도시 계획 그 자체는 고대 사회에도 존재했지만 학문으로서의 도시 계획은 불과 금세기 중엽부터 뿌리를 내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유구한 인류사에 비교하여 오늘날 대부분 사회과학의 역사는 불과 100년 남짓하지만 도시 계획학은 그보다 더욱 일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스스로의 변동 속도가 너무나 급격하여 도시계획학의 학문적 색깔도 대단히 빨리 바뀌게 되었다. 도시는 자연과 사회 현상의 집

합체임은 물론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이룩되어 있는 실체이지만 도시라는 실체를 어떻게 파악했는지에 따라 도시계획학에 대한 연구의 시각도 달라지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 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정시켜 크게 양대 관점으로 나누어 보자면, 도시를 여러 요소들이 집합되어 이루어진 실체인 총체적 개념으로서, 다음에는 여러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고 있는 유기체적 실체인 구조적 관점에서의 파악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전자에 있어서는 도시의 문제를 가시적인 것 에다 두고 비교적 독립적으로 취급하였다. 상·하수도, 도로 구획 등 토목 사업과 건축 규제라는 기술적·공리적 특징 위에서 그 도시에 대한 근본 이념이나 철학을 갖지 않고 단편적인 치료를 위한 물적 계획을 위한 지식의 확립이었다. 이때의 도시계획학은 토목공학, 건축학, 환경공학 등의 학문적 범주를 벗어나기 힘들었으며 오히려 이들을 배제하고는 계획을 위한 어떤 기준을 정립하기가 곤란했던 것이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와 같은 분야들의 조화 있는 결합 내지 종합이 곧 도시계획학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후자의 경우는 전자와는 접근상 케도를 완전히 달리 한다. 도시가 부분 요소의 총합이 아니고 부분들이 상호 작용하고 있는 전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도시의 문제나 현상이 보다 더 심층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 또한 나타난 현상이 예컨대 '地價의 급상승' 일지라도 단순히 투기 내지 토지의 수급 불균형이라는 틀 속에서만 직시하려 하지 않고 도시의 물리적 구조, 토지 이용 상태, 교통, 도시 경제, 사회 병리 등과의 연관 속에서 근원을 찾으려고 한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학이 관여하는 범위는 상당히 넓으며 지표상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학문의 일부 내지 상당 부분이 도시계획학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가지 특기할 사실은 전자의 경우, 계획가나 도시학자들은 도시를 여러 요소들의 단순한 총합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당연히 그들의 눈에는 도시가 알기 쉬운 간단한 실체로 비추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어떠

한 도시 전문가들도 도시를 알 수 없는 실체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양자간에는 극단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도시를 왜 알 수 없는 실체라고 하느냐 하면 도시의 어느 한 요소는(예컨대 주택, 학교, 시장 혹은 은행 등) 얼마나 많은 다른 요소와 어떻게, 어느 정도 상호 작용하고 있는가를 알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도시의 본질을 처음부터 모르면서 아는 것으로 전제하고 계획을 위한 지식을 동원해야 함이 현대 도시 전문가들의 처지이다. 이것이 도시 전문가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점일 수도 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오늘날 도시 계획이 학문으로서 여타 분야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진전을 보인 것은 바로 전문가들이 원초적 컴플렉스의 극복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온 결과라고 보고 싶다.

어쨌든 다양한 학문의 연관 내지 종합을 요구하는 도시계획학은 문제 복합체의 기하급수적 상승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산업 사회에 너무나 걸맞는 학문으로 부각되어 왔다. 도시계획학이 현대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행동 실천을 위한 지식 탐구 작업이기는 하나 미래의 행동 실천을 전제로 함이 타 분야의 지식 탐구 과정과는 접근상 다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달리 표현하자면, 도시 문제가 발생할 때 단순히 이를 치료하기 위한 처방만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사태를 사전에 예상하여 미래의 실천적 행동에서 실패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최선의 미래 처방까지 내려준다는 데서 여타 분야의 학문과 쉽게 식별이 된다.

이리하여 학문으로서의 도시 계획은 무릇 사회 문제 및 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 중에서 동태적 현대 도시의 요구에 따라 발전된 독특한 학문적 영역을 구축하게 되었으니 도시계획학의 현 주소는 여기서 찾아가게 된다.

3. 都市工(計劃)學科의 現況

1) 學科 現況

해방 후 1960년대초 대학에서 도시계획학과가 설립되기 직전까지는 도시 계획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정규 대학 건축학과 및 토목공학과에서

도시계획개론 내지 단지계획론을 선택 과목으로 개강한 정도였다. 그러나 5·16 후 군정이 끝나는 1960년대 중반부터 선진 국가와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국가 경제 개발 계획이 착수됨과 함께 인구의 과도한 도시 집중과 그에 의한 도시 문제의 심각성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이에 체계적인 지식의 확립을 통해서 대처하기 위한 전문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1965년 동아대에서 국내 최초로 도시계획학과가 개설되었고 이어서 1968년에 한양대와 홍익대에서 동 학과가 신설되어 1970년대말까지는 전국적으로 5개 대학에 이르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본 학과의 신설이 두드러졌는바, 1980년의 영남대에서부터 1989년 부산대에 이르기까지 무려 10개 대학에서 신설되어 현재 도시공(계획)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은 전국 15개 대학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약 50%가 수도권내의 대학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대학원 과정에서 도시 계획 분야의 교육은 1968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도시 및 지역계획 학과의 개설이 최초였다. 이 학과는 1972년에 환경대학원으로 독립되면서 승격되어 주·야간 석사과정에서 환경계획학과와 환경조경학과인 양대 학과를 두게 되었다. 이어서 1983년에는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매년 5명 정도의 입학 정원 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부에 학과가 개설되어 대학원 석사과정을 두게 된 1972년의 동아대에서부터 한양대, 홍익대, 서울대, 영남대, 계명대를 거쳐 1988년에 서울시립대와 경원대 등 8개 대학에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었다. 박사학위 과정은 1978년 한양대에서 처음 개설되어 그후 홍익대, 서울대 그리고 1988년 동아대에서 마지막으로 개설되었다. 나머지 대학들도 여건이 구비되는 대로 대학원 과정을 설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1〉 참조).

2) 卒業生 社會進出 現況

1988년말 현재 도시공(계획)학과 의 졸업생은 학부과정이 동아대, 한양대, 홍익대, 서울대, 원광대, 영남대, 계명대, 서울시립대, 경원대의 9개 대학에서 1,655명, 석사학위 취득자(전문

〈표 1〉 우리나라 도시공(계획)학과 현황

(1988년 12월말 현재)

대학	구분	학과명칭	설립연도	정원	대학원 설립 연도		비고
					석사과정	박사과정	
동아대	대	도시공학과	1965	50	1972	1988	※ 도시계획학과를 도시공학과로 개칭(1988)
한양대	대	도시공학과	1968	50	1973	1978	
홍익대	대	도시계획학과	1968	30	1973	1979	
서울대	대	도시공학전공	1979	20	1980	1980	
영남대	대	도시계획공학과	1979	40	—	—	
계명대	대	도시공학과	1980	40	1985	—	
서울대	대	도시공학과	1981	40	1984	—	
경원대	대	도시계획학과	1983	50	1988	—	
수원대	대	도시공학과	1988	40	—	—	
경상대	대	도시공학과	1983	50	—	—	
충북대	대	도시공학과	1988	40	—	—	
동신대	대	도시공학과	1988	50	—	—	
부산대	대	도시계획공학과	1989	30	—	—	
목원대	대	도시공학과	1989	40	—	—	
계		15개 학과		610			

자료: 대한국토계획학회, 도시정보, 제 8 권 제 2 호, 1989. 2.

〈표 2〉 도시공(계획)학과 졸업생의 사회 진출 현황

(1988년 12월말 현재)

학 위	취득자수	공무원		국영기업체		일반기업체		도시관련	연구소	학계	기타
		일반직	기술직	도시관련	기타	건설회사	일반회사	용역회사			
학사	1,655 (100)	5 (0.3)	44 (2.7)	88 (5.3)	18 (1.1)	147 (8.9)	217 (13.1)	234 (14.1)	47 (2.8)	33 (0.2)	822 (49.2)
석사	185 (100)	—	12 (6.5)	10 (5.4)	1 (0.5)	22 (11.9)	13 (7.0)	8 (4.3)	22 (11.9)	27 (14.6)	70 (37.8)
박사	17 (100)	—	—	—	—	—	—	—	—	17 (100)	—
계	1,857 (100)	5 (0.3)	56 (3.0)	98 (5.3)	19 (1.0)	169 (9.1)	230 (12.4)	242 (13.0)	69 (3.7)	77 (4.1)	892 (48.0)

주: ()는 백분율

자료: 대한국토계획학회, 도시정보, 제 8 권 제 2 호, 1989. 2.

대학원 제외)가 동아대, 한양대, 홍익대, 서울대, 영남대, 계명대의 6개 대학에서 185명 그리고 박사학위 취득자가 한양대, 홍익대, 서울대의 3개 대학에서 17명으로 총계 1,857명에 달한다.

학사학위 취득자 중에서 도시계획 전공 분야와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공무원, 도시 관련 국영 기업체, 건설 회사, 용역 회사, 연구소 및 학계에 진출한 인원은 전체 졸업자의 약 36%

로서 저조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또한 특별한 노력이 없는 한 계속 낮아질 전망이다. 그리고 이러한 취업 문제는 인력 수급의 지역간 불균형이라는 문제로 인하여 지방 대학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석사학위 취득자의 경우는 약 55%, 박사학위 취득자는 전원이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진출하였다. 학부 졸업생의 전공 분야 진출이 저조한 것도 문제가 되겠으나 석사학위 취득자의 전공

분야 진출이 절반을 겨우 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 중 26.5%만이 전문 연구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차후 이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첨가해서 도시 계획 전공 분야의 큰 수요처로 알려져 있는 정부 부문의 진출이 지나치게 낮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표 2〉 참조).

4. 都市工(計劃)學科의 敎科課程 現況

1) 敎科課程의 現況 分析

도시의 제반 현상과 문제들은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기능과 활동 그리고 물리적 환경 요소들의 복합 관계에서 발생한다. 도시의 합리적 계획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분석과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이를 학문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도시 계획 분야에서는 크게 기초 및 응용 분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여러 현상과 문제들에 대한 해석과 과학적 분석을 다루는 분야를 기초 분야라 한다. 기초 분야에는 도시계획개론, 도시역사(도시계획사), 도시구조론, 도시지리학, 도시환경론, 통계학 및 컴퓨터 응용, 도시 및 지역 경제 분야가 포함된다. 본교에서는 이들 중 컴퓨터 응용 분야를 아직 개강하지 않고 있다.

응용 분야는 도시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론과 계획하는 일을 포함한다. 즉 기초 분야에서 밝혀진 자료와 이론을 바탕으로 방법론의 개발이나 또는 이를 바탕으로 도시 문제의 해결과 계획을 수립한다. 이 분야는 실습과 경험 그리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도시 설계, 교통 계획, 도시 시설 계획, 토지 이용 계획 등 도시의 물리적 계획과 도시 관리, 개발 계획 및 개발 전략 등이 포함된다.

앞서 밝혔듯이 도시계획학은 분과 학문간 연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른 학과들처럼 전공 분야를 쉽게 나눌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또 역지로 구분함에 있어서도 다소 어색한 감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각 분야별로 요구되는 과목은 특수한 몇 개의 과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과목이 공유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념적인 것에

〈표 3〉 동아대 도시공학과 전공 과목

학기	1학기	2학기
2	도시 계획 개론 도시 계획 제도 조형 실습 도시 구조론 도시 측량학	도시 계획사 도시 계획 제도 조형 실습 도시 조사 방법론 도시 환경론
3	토지 이용 계획 도시 개발 계획 도시 계획 실습(Ⅰ) 도시 계획 실습(Ⅱ) 도시 인구론 부동산학원론 도시 시설 계획	도시 설계학 국토 및 지역 계획 도시 계획 실습(Ⅰ) 도시 계획 실습(Ⅱ) 도시 계획 법규 계획 이론 주거론
4	단지 계획 교통 계획 도시 종합 계획 연습 도시 사회학 도시 계획 세미나 * 구조역학	도시 재개발 계획 산업 입지론 도시 종합 계획 연습 * 도시 경제학 조경 계획 * 건축 계획각론

주: *는 교·강사 부재시 폐강, 타학과 선택이지만 거의 수강치 않음

바탕을 두어 굳이 전공 분야별로 나누어 보자면 도시 정책 및 개발 전략 분야, 교통 계획 분야, 도시 설계 분야 그리고 국토 및 지역 계획 분야의 4개 전공 분야로 나눌 수도 있다. 그리고 교과목을 학년별·학기별로 나누어 보자면 위의 〈표 3〉과 같다.

〈표 3〉의 교과과정은 대학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하다. 여타 대학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동아대도 위의 교과목들이 1970년 이래 수없이 변경·조정되어 현재와 같은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재조정되어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학년별로 배당된 교과목 중에서 다른 단과대학의 폭 넓은 지식을 갖추어야 학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과목을 추려 보자면 조형실습(美大), 도시조사방법론(사회학과), 도시계획사(사학과), 도시인구론(사회과학대), 부동산학원론(경제학과, 법학과), 도시계획법규(법학과), 계획이론(철학과, 행정학과, 정치학과, 사회학과), 도시사회학(사회학과), 산업입지론(지리학과, 경

제학과), 도시경제학(경제학과), 조경계획(농대) 등 11개 과목으로서 전체 전공 과목 중 1/3 이나 된다.

다음에 타학과 선택 과목을 제외한 전 교과목 중 도시의 물리적 계획과 크게 관련되는 과목은 도시환경론, 토지이용계획, 도시시설계획, 단지계획, 교통계획, 조경계획, 도시계획실습(2), 종합계획연습의 10개 과목이다.

도시계획학의 학문적 성격은 우선 교과과정단의 검토로서도 바로 납득할 수 있으며 강한 종합과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학문임을 쉽게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2) 敎科課程의 問題點

도시공학과와 교과과정을 검토해 본 결과 발견된 문제점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의 도시공(계획)학과는 공과대학에 소속되어 있어서 교양 과목 중 중화학 계열 내지 전기 전자 계열에 합당한 과목들이 도시공(계획)학과의 처지로 보아 상대적으로 과중한 감이 없지 않다. 앞으로 도시공(계획)학과의 입장에 적합한 교양 과목의 개발이 요청된다.

② 본 학과의 학부를 마치고 직업 전선에 투입될 학생의 입장에서는 교과목 내용의 수준이 다소 높은 것 같다. 이들이 실무에 쉽게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과목 중 건축, 토목, 환경 및 행정, 재정, 경제학, 컴퓨터 기법 등의 과목들이 비교적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 같다.

③ 지면 관계로 대학원 교과과정은 생략되었지만 거의 대부분 교과목들이 대학원 교과목들과 중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분석해 볼 때, 첫째로 국내의 모든 도시공(계획)학과들이 교과목의 위계를 아직 확립해 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로 학부의 성격에 맞는 기초 과목의 다양성 내지 실무에 충분히 임할 수 있는 교과목이 개발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교과목의 체계성과 전문성의 미확보는 현실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장래 진로 설정에 혼선을 유발시키고 있다.

④ 학부의 전 교과목 중 약 30%가 인문 및 사회과학대학 소속의 학과 과목들이다. 그런데 도

시공(계획)학과는 공과대학에 소속되어 있어서 학생들 본래의 적성 및 취향과는 전혀 상반되는 타 대학 과목들을 졸업할 때까지 30% 이상이나 이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2학년 진학과 동시에 본 학과에 싫증을 느끼는 학생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⑤ 도시계획학은 도시의 문제나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되 공간적 측면에서 이들을 연구한다. 어떤 문제나 현상이 어느 장소에서 발생했으며 왜 그곳이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교과목의 성격도 그 학과가 소재해 있는 도시 혹은 지역적 특성(市 혹은 道 단위)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전국 각 대학의 교과목이 거의 같은 입장에 머물러 있으며 독특한 교과목은 발견할 수 없었다(예컨대 부산 동아대의 경우는 항만도시개발론, 도서지역개발계획 등). 앞으로 이에 대한 검토도 대학마다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都市工(計劃)學科의 當面問題와 改善方案

우리나라는 지난 4반세기 동안에 이룩한 경제 발전에 힘입어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되었고 그 부작용으로서 도시 문제가 날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도시 계획에 관한 교육과정은 일찍부터 산업화·도시화 과정을 이룩한 서구 사회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확립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965년 본교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지금은 15개 대학으로 확산되었다. 이것은 그동안 이 분야의 전문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매우 절실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도시 계획에 관한 교육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본교는 교과과정을 수차례 수정해 왔으며 현재에도 계속 검토중에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본 학과의 양산 체제만 갖추었을 뿐 배출 인력의 활용 방안은 도외시 해 왔기 때문에 교수의 강의 의욕 저하와 교수와 학생간의 갈등 요인만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학과의 발전 방향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이 분야의 수요가 가장 적극적이어야 하는 정부 부문에서 오히려 저조하며 그 다음이 연구기관의 순서이다. 민간 용역 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흡수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직장으로써 計劃家를 수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計劃家라는 직업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는 도시공(계획)학과의 장래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우선 시급한 것은 정부 부문에서 계획직을 체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적열이나 직군을 편성해야 한다.

② 한국의 현실을 무시한 미국적 이론과 기법의 내습으로 미국식 도시 계획을 맹신하게 된 것은 1970년 이후부터였다. 그간에 문화와 가치관념이 다른 서구적 계획 사상도 함께 있었던, 이른바 선진국의 도시 계획 이론이나 기법이라면 이론 자체의 우수성을 떠나서 또는 우리의 현실에 응화가 되든 않는 간에 쉽게 정착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다국적 학문이 이제는 우리의 현실에 맞게 통합되어 우리의 풍토에 알맞은 이론이나 기법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할 때가 온 것 같다. 이것이 교육과정에 투영될 때 재학하는 학생들의 학문적 정서 불안도 해소될 것이다.

계획은 특정 시대와 특정 집단의 미래 의지에 대한 전체적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고 절차이다. 계획가는 득단보다는 대화와 실득을 통한 합의를 형성할 줄 알아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

가의 자질은 더욱 요구될 것이므로 계획 교육 속에 이러한 교육적 필요성을 어떻게 도입하고 또한 교육과정 속에 소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이와 같은 연구 의욕의 고취와 증진은 졸업생의 취업 정도에 지대한 영향 요소일 수 있다. 취업에 있어서는 정부 부문이 매우 중요하며 민간 부문도 큰 역할을 한다. 본교가 도시계획학과에서 도시공학과로 개칭한 점이라든가 어떤 대학은 도시공학과로 또 다른 대학은 도시계획학과로 남아 있지만 도시계획공학과라는 명칭까지 사용하고 있는 점은 모두 취업과의 관련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정부 부문에 수요 개방을 10년 이상 요청해 보았지만 성사가 되지 않아 민간 건설업 부문에라도 발길을 돌리자는 등 학과 교수들의 절박한 심정에서 연유된 학과 명칭의 三重性으로부터 우리는 졸업생 취업과 학과 발전과는 얼마나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 *

<參考文獻>

- 김창석, 도시계획학과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계획학회, 국토계획, 제22권 제1호, 1987.
 최상철, 계획가, 계획교육과 프로세서날리즘; 한국적 현실과 전개방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논총, 제12권, 1983.
 대한국토계획학회, 도시정보, 제8권 제2호, 1989.2.